미국 화학기업“감원" 바람

Upstream 1만1000명 감축 … 의약은 6000명 증원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각 기업마다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최근 Proceter & Gamble의 직원감축 발표 및 의약품기업들의 일련의 임시해고 조치와 더불어 downstream 화학산업 분야에서도 직원감축이 단행되고 있다.

91년~92년 사이 미국 Upstream 화학기업에서는 1만1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92년 화학산업계 전반에 걸쳐 6000여명이 직장을 상실했는데 최근 의약품업계가 6000여명을 채용, 화학산업계의 직원 감원을 무마할 수 있었다. 1993년 6월 화학산업계의 직원은 92년대비 13% 가량 감소하여 1만16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화학산업계 고용실태 (단위:1000명)

	1991.6	1992.6	1993.6
화학관련산업	1,080.2	1,091.9	1,086.2
제약	205.6	212.0	217.9
화학산업(제약업제외)	874.6	879.9	868.3

세계 화학기업 고용추이 (미국인 기준)

구 분	1993.6	1991.12
DuPont	66,637	74,611
Miles	25,913	27,607
W.R.Grace	25,411	32,433
Dow Chemical	21,300	24,193
Hoechst Celanese	21,120	21,290
American Cyanamid	18,298	17,145
Eastman Chemical	17,926	16,915
BASF	16,737	18,766
Hercules	15,419	17,324
Monsanto	11,100	12,200
Union Carbide	11,025	13,184
Air Products and Chemicals	10,184	10,292
Quantum Chemical	8,730	8,930
Rohm and Haas	8,000	8,400
Dow Corning	4,392	4,790
Ethyl	4,196	5,228
Dexter	3,424	3,350
Lubrizol	2,937	2,907
Lyondell Petrochemical	2,407	2,270
Ferro	2,314	2,276

플래스틱산업과 합성원료산업 부문의 고용인원은 4000명이 감소했으며 기타 화학산업 분야에서도 감소했다. 산업 유기물 생산업계에서도 92년대비 93년 6월 현재 고용인원 2000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감원 현상은 미국 선두 화학기업들의 기업구조 재개편 계획의 결과로서 최근 20여개 주요 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공식 고용인원 조사에 따르면 1991년 이래 2만50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5~10%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미국행정부의 의약품 마진축소 압력에 따라 제약산업계는 비용절감이 시급,이미 Marison Merrel Dow,g.d.Searle,Merck 등은 비용감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화학산업계의 고용은 81년 호황 당시 110만 9000명에서 단지 3% 감소했으나 제조업분야는 81년 이래 12%가 감소, 이 분야의 침체를 드러내고 있다.

<화학저널 1993/9/13>